

고전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heroine reflected in classical literature

저자 (Authors)	강명혜 Kang, Myeong-Hye
출처 (Source)	한국문학과 예술 11 , 2013.03, 59-102(44 pages)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11 , 2013.03, 59-102(44 pages)
발행처 (Publisher)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Institute of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8428
APA Style	강명혜 (2013). 고전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한국문학과 예술, 11, 59-10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30 15:5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전문학에 투영된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강명혜*

국문초록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표 영웅은 주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고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담'은 '여화위담'을 해서 '남성'으로 분장하고 활약한 후 얻은 칭호였기에 진정한 의미의 여성 영웅은 부재한다는 것이 기존 시각이었다. 그러나 '영웅'이라는 어휘의 표상성은 불변이지만 그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표의성은 사실 古今東西에 따라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영웅이란 고전소설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며, 또한 박제된 씨니피에도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본고에서는 헤게모니를 지닌 남성적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우리나라 여성 영웅의 모습을 찾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여성 영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작가나 잠재작가적 시각, 혹은 해석자의 시각이나 시선에 따라 은성화되거나, 축소, 혹은 함축되거나 유사한 영웅의 모습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시조모인 웅녀는 생생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고와 고행을 거쳐 재생하는 지모신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동안 잠재 작가의 남성적 시각에 의해 단군과 환웅에게 가려져 있는 은성화된 영웅이었다.

고구려의 시조모인 유화 또한 당당한 영웅에 해당된다. 모든 시련을 당당하게 극복하고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인물인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은 당당히 곡모신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는 등 위대한 영웅이었다. 단지 편견과 오독, 그리고 시각의 외면에 의해 그 동안 축소된 영웅이었다.

수로부인도 신물들이 모두 주목하는 고귀하고 신이한 인물이며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영웅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비록 암시와

* 강원대 연구원

상징, 축약, 알레고리로 되어 있어서 이를 해독하는데 수월하거나 단선적이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풍요와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한 인물인 수로부인은 당당한 영웅에 해당된다.

<홍계월전>을 비롯해서 고전소설 텍스트 속의 주인공(actant)들을 그 동안 텍스트 구조 속에서 여화위남, 즉 남복을 입고 영웅적 행위를 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었다. 이러한 점이 아쉽지만 이러한 측면도 조선시대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의 특질로 인정하고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주제어 : 여성영웅, 남성적 시각, 근원, 박제화, 풍요, 여화위남

1. 서 언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대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것은 진화, 변이, 변모적 양태를 보인다. 인간의 오래된 아키타입 중 하나이며 영원한 네버엔딩(neverending) 스토리에 속하는 ‘영웅’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영웅’이라는 어휘의 표상성(signifiant)은 불변이지만 그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표의성(signifie)은 사실 古今東西에 따라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올바른 ‘영웅’의 개념은 공간적, 시간적 양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영웅’은 당대의 컨텍스트 하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물론 ‘영웅’이라는 개념에 함유시킬 수 있는 공분모적 기본 틀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고금동서에 따른 각각의 고유성이나 이질성, 나아가서는 확장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웅’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개념을 보면 “才智와 武勇이 몹시 뛰어난 사람”¹⁾이다. 즉 우리 나라에서 영웅이란 戰士의 이미

1) 신기철, 신용철,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3.

지가 강하다. 이런 점에서 고전문학사에서 동명왕이나 이순신 등을 영웅으로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영웅’에 대한 정의는 거의가 “고전소설에서 기본적인 유형적 틀을 지니고 있는 특정 인물을 영웅이라고 지칭하며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을 영웅소설(영웅군담류)이라고”²⁾ 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은 ‘국가를 위해서 출정하는(남녀 공히 모두, 여성의 경우는 여화위남을 한다) 인물(영웅)’ 주제가 반드시 삽입되고 있다. 따라서 전사적 이미지는 우리나라 영웅소설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웅은 고전소설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며,³⁾ 또한 박제된 씨니피에도 아니다.

칼라일은 영웅에 대해 “인격적 성실성과 도덕적 통찰력이라는 정신적 자질을 갖춘 위인으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숭배, 찬탄할 수 있고 위대한 인간에 대한 감탄을 우리에게 부여하며, 인간 생활을 활기있게 하는” 인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영웅의 특성으로 ① 성실, 진실 ② 통찰력 ③ 여러 가지 가능성을 들고 있다.⁴⁾ 따라서 칼라일은 성직자, 제왕, 문인, 신 등의 다양한 영웅을 인정한다.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나 움베르토 에코의 대중의 영웅에서도 모두 다양하고 확장된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맹자가 말한 浩然之氣를 지닌 대장부도 바로 동양적 영웅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예로부터 많은

2) 영웅소설, 영웅군담소설에 나타나는 영웅의 일생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인공의 출생 ② 주인공의 시련 ③ 시련의 극복 ④ 국가적인 시련 ⑤ 국가적인 시련의 극복 ⑥ 부귀영화 ⑦ 주인공의 사망(민중기, 군단소설의 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80. 9쪽.

3) 신화적 영웅이 지니는 영웅의 일대기 유형적 틀(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46쪽)

①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② 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③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④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른다 ⑤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난다 ⑥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힌다 ⑦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된다.

4) 토머스 칼라일, 박상일, 『영웅숭배론』, 한길사, 2003. 42쪽.

사람의 영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영웅은 최소한 탁월한 능력, 고난, 극복, 사회적 가치라는 요소와 관련 있다.⁵⁾

이렇듯이 영웅이라는 씨네피에는 동서고금, 또한 고대, 근대, 현대의 ‘영웅’ 정의가 동일할 수 없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화, 진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웅을 그려내는, 또는 변별하는 시각이나 주체자에 따라 영웅에 대한 정의 및 그 현상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즉 누구에 의해 어떤 시각과 시선으로 어떻게 재단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술되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영웅에 대한 시각이나 관점도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모든 독서란 곧 고쳐쓰는 것이다”⁶⁾는 의미는 결국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느끼는 만큼 다시 재생되건 재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연히 놓친 것 외에도 고의적-고의가 무의식적이라 해도-으로 매장된 어떤 사실을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고전문학에 표명되고 있는 여성 영웅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의는 한국사에서 진정한 ‘여성 영웅은 존재하지 않았나?’, 존재했다면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나’에 대한 질의로부터 출발한다. 사실 이 같은 질문은 아주 복잡한 듯하지만 사실은 단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질의 차이는 담화적 측면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미메시스』의 논리에 따라⁷⁾ 제시된 내용의 행간이나 틈, 이면, 언술된 표면을 통해 놓친 의미를 찾아내거나 재해석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역사에서 진정한 여성 영웅이 부재하는 것은 정말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부장적 이념이나 남성 헤게모니적 시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5) 조평환외, 『한국고전문학산책』, 건국대출판부, 2004, 254쪽 참조.

6) K.K 루트반, 김경수 역, 『페미니스트 문학비평』, 문학과 비평사, 1988, 119쪽 재인용.

7) 에리히 아우얼바하, 김우창·유종호 역, 『미메시스』, 민음사, 1987. 재인용.

본고에서는 이렇듯이 기존의 시각, 다른 말로 하면 헤게모니를 지닌 작가의 시각, 결국 남성(반드시 생물학적 의미를 지칭하지는 않는다)적 시각, 남성의 언어, 남성의 해석에서 벗어나 변두리적 시각으로 보고자 한다. 환언하면 예술의 표면, 틈, 이면, 행간을 통해서 기존의 시각에서 놓쳤거나 고의적으로 무신경하게 넘어갔던 것을 찾아 규명하고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성이나 신분적 요인에 의해 한 구석으로 밀려난 소외 집단의 숨죽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당한 자리매김을 해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본고의 주목 대상이 되는 문헌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국이상국집』, 『홍계월전』 등이다.

2. 한국 여성 영웅의 담론적 특성

본고에서는 영웅을 영웅답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틀을 마련한다. 즉 ‘영웅’이라는 씨니피앙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씨니피에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개념 정의는 앞에서 제시한 모든 견해를 토대로 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조선조 영웅에 해당되는 유형적 틀, 즉 전쟁영웅적 성격이 강한 영웅은 너무나 협소한 개념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 영웅은 전쟁 영웅 그 이상이어야 한다. 즉 ①최소한 자신의 고난과 실패와 시련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로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하며, ②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바친 사람이다. ③또한 도덕적으로 성실해야 하며, 각 개인이 살아가는데 롤모델이 될 인물이어야 하며, ④사람들을 좋은 결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⑤사람들의 숭배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 외 ⑥“재주와 지혜와 용맹 등이 특별히 뛰어난 인물, 또는 보통사람으로는 엄두도 못 낼 위대한 일을 이룩하여 칭송받는 사람”⁸⁾, ⑦사람들의 머리속에 기억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위에서 열거한

『魏書』에 말하기를 지금부터 2천년 전에 壇君王儉이 가서 阿斯達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朝鮮이라 불렀는데 高(중국의 堯임금)와 같은 시기였다. 또 『古記』에 이런 말이 있다. 옛날에 桓因의 庶子 桓雄이 가서,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매우 갈구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三危太伯山(산이름)을 내려다 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天符印(신의 위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상이 되는 세 가지 물건)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그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太伯山 마루턱에 있는 神壇樹 밑에 내려왔다. 이곳을 神市라 불렀다. 그리고 이 분을 桓雄天王이라 한다. 그는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穀(곡식)·命(수명)·病(질병)·刑(형벌)·善·惡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 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 때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神雄, 즉 桓雄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 때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百日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고 三·七(21)동안 扞하니 곰은 약속한 지 3·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지키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의 이름을 檀君王儉이라 일컬었다.

단군왕검은 唐高(唐堯를 말함)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朝鮮이라 불렀다. 또 도읍을 白岳山 阿斯達로 옮기니 弓忽山 또는 方忽山이라고도 하고 今彌達이라고도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周나라 虎王(무왕)이 왕위에 오른 己卯년에 箕子를 조선에 봉했다. 이에 단군은 藏唐京으로 옮겨 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세였다고 한다.(『三國遺事』, 卷2, 紀異 第一)¹¹⁾

11) 『帝王韻紀』本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上帝 桓因은 庶子가 있었으니 이름이 雄이었다고들 한다. 이 웅에게 일러 말

<단군신화> 텍스트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세 부분의 주인공(actant)은 각각 다르다. 즉 주인공이 세 번 바뀌면서 전개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단군신화> 이야기 전개 구조는 ① 환웅(actant)이야기(환인 등장), ② 곰(actant)이야기(환웅, 호랑이 등장), ③ 단군(actant)이야기로 전개된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 구조 속 환웅이야기는, 환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 물론 환인도 등장하지만 주된 주인공은 환웅이다. 환웅은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의 서자이다. 그러나 환웅은 하늘나라보다는 인간세상을 매우 갈구한다. 환인은 환웅의 이 뜻을 알고서 세상으로 보낸다. 이에 환웅은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太伯山 마루턱에 있는 神壇樹 밑에 내려와서, 그곳을 神市라 칭하고, 스스로 바람과 비와 구름(농업을 관장·생계와 관련)을 관장하면서, 생계(곡식) 및 의약(수명·질명), 법질서(형벌), 도덕적 측면(선악)까지도 주관한다. 더구나 인간에 관해서 360가지(일년을 상징)를 주관하며 인간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한다. 거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도 암시한다(수명까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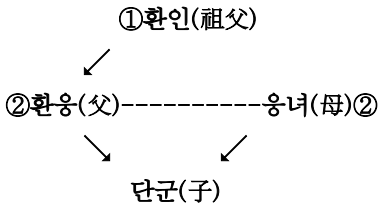
두 번째 <단군신화> 이야기 구조에서는 ‘곰과 호랑이와 환웅’이 등장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곰’이다. 앞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 인간세상에서의 사건인데,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기를 갈구한다는 것이다. 환웅은 이들에게 ‘인간’이 되기

하기를 “내려가 三危太白에 이르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웅이 天符印 세 개를 받고 귀신 3천을 거느려 태백산 마루에 있는 神壇樹 아래에 내려왔다. 이 분을 檀雄天王이라 이른다 고들 한다. ... 孫女로 하여금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여 檀樹神과 결혼시켜 아들을 낳게 했다. 이름을 檀君이라 하니 조선의 땅을 차지하여 왕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시라(尸羅:신라?)·고례(高禮:고구려?)·남북옥저(南北沃沮)·동북부여(東北扶餘)·예(濊)와 맥(貊)이 모두 단군의 후계이다. 1,038년 동안 다스리다가 阿斯達山에 들어가니, 신이 되어 죽지 않은 연고이다.” 李承休(帝王韻紀, 卷下, 前朝鮮紀)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신령스러운 쑥 한줌과 마늘 20개를 먹으면서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있음이 그것이다. 호랑이와 곰은 환웅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결국 성공하는 것은 ‘곰’이다. ‘곰’은 인간여자 ‘웅녀’가 된 것이다. 웅녀는 인간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 대를 잇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환웅이 그 배우자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환웅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신격’이기에 웅녀의 영원한 배우자는 될 수 없다. 환웅은 대를 잇기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웅녀는 드디어 ‘단군’을 낳는다. 따라서 단군은 神 환웅을 아버지로 하고, 갖은 노력과 시련을 통과한 非凡한 女人 ‘웅녀’를 엄마로 해서 태어난 인물인 것이다.

세 번째 <단군신화> 이야기 구조의 주인공은 ‘단군’이다. 이렇듯이 비범한 부모를 둔 비범한 인물인 단군이 국가를 건국해서 시조가 된다는 이야기담이다. 물론 단군이 세운 국가는 ‘고조선’이다. 단군은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1500년간이나 다스린다(후에 도움을 아사달로 옮김). 이 때 ‘단군’이라는 명칭은 기존학설 대로 보통명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군’이라는 명칭 하에 대대로 신성한 핏줄을 이어간 것이다.

이렇듯이 <단군신화> 이야기담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는 기존학설에서 주장하듯이 ‘환인→환웅→단군’이야기라기 보다는 ‘환웅-웅녀-단군’의 구조를 보이는 ‘단군의 탄생 스토리’며, ‘가족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단군신화>는 환인과 환웅과 단군, 이렇게 삼대의 이야기로도 볼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군신화>는 아버지(환웅)와 어머니(웅녀)와 아들(단군)의 역사이고 이야기담이다. 즉, 영웅(건국 시조)의 집안 배경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결국은 우리 민족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환웅도, 환인도, 단군도 아닌 ‘웅녀(곰이야기 포함)’라는 것이다. 어떤 서사담이든지 가장 많이 언술되는 있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주인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결국 단군신화의 주인공은 ‘웅녀’이다.

그렇다면 웅녀는 영웅일까? 영웅의 최소 조건에 의거 살펴본다. 웅녀는 탄생에서 시련을 겪는다. 곰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웅녀는 조력자를 얻는다. 즉 환웅이라는 조력자이다.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으며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간 웅녀는 승리하지만 또 다른 시련에 빠진다. 2차 고난인 썸이다. 배우자를 얻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를 극복한다. 이렇듯이 1, 2차 고난을 잘 헤쳐 나가면서 웅녀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것을 획득한다. 국가를 건설할 후계자 획득 및 母神(地母神) 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인내, 목표를 향한 집념, 신념과 고난 극복, 끈기 등을 지녔으며 한 조상의 모신이라는 신성성을 획득한 웅녀는 여성영웅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동안 헤게모니를 쥔 남성적 시각에 의해 단선적으로 하등인 동물이나 단군을 잉태한 여인으로만 알려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이 웅녀는 단군신화담의 주인공이며 여러 가지 변모 가능성을 가진 양태로서 당당한 영웅이다.

영웅으로서의 웅녀; 기이한 탄생(곰)→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시련)→
조력자(환웅)→인간이 되었지만 배필이 없음(2차 시련)→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획득(始祖母)

학계에서 통칭 지칭하듯 단군을 낳은 모친인 곰(웅녀)은 토렘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실존했던 ‘곰’부족이나 ‘곰 토렘’을 지칭하는 것이고, 곰 숭배 부족이 정말로 승리한 이야기라면, 우리나라에는 곰이야기담이 곳곳에 전승되고 있거나 널리 유포되었거나 곰 숭배 사상이 현재까지 내재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곰’보다는 ‘호랑이’와 친근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호랑이’라는 존재는 결코 낯설지 않다. 우리에게 호랑이는 경원의 대상이며, 신성물이면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친근한 수호자로서의 면모도 지니면서 항상 우리의 이야기담에 등장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 숭배 종족이 패배한 것이 정말로 옳다면 호랑이 숭배사상이나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담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거나 전파되어 있지 않아야 정상이며,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진 채 지하에 묻혀있어야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민가에서는 ‘호랑이 숭배사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호랑이담’은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다. 현재 호랑이는 산신으로도, 산신의 使臣으로도 등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예맥족은 호랑이를 섬겼다고 한다.¹²⁾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호랑이는 엄밀히 말하면 二重的인 코드로 나타난다. 즉, 守護神으로서의 호랑이와, 인간을 害하는 대상으로서의 호랑이가 그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코드를 가진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는 동물 중에서 인간적인 속성을 가장 많이 보유하면서 품위를 지닌, 인간을 상징할 수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인간처럼 두발로 설 수 있고, 겨울잠을 잠

12) 『삼국지연의』 동이족 항.

으로써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기에 인류초기부터 달과 땅과 여성을 상징했던 동물, 또 가진 힘에 비해 사납지 않고(평화를 사랑하고), 어느 정도의 덩치도 있어서 품위도 있는 동물로서 ‘곰’을 비견할 만한 것을 없을 것이다. 사실 곰을 조상이라든가 인간의 친족 등으로 여기는 시각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아시아와 인디언 종족들의 경우는 특히 그러한데, 동북아시아의 소수민족인 악륜춘족, 악온극족, 혁철족들에게 곰은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곰’이 ‘조상의 어머니’로 선정된 것일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① 외모가 사람과 흡사하고 품위가 있다는 점 ② 당대에도 공포와 외경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를 제압할만한 외모를 지닌다는 점 ③ 초식이나 잡식성으로 포악스럽지 않다는 점 ④ 겨울잠을 잔다는 점에서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⑤ 겨울 잠을 자고 봄에 깬다는 점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승리하는 승리담에 부합한다는 점 ⑥ 無에서 有가 생성된다는 특징으로 달과 대지 그리고 여성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웅녀→유화→알영→용녀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 등에서 채택된 상징적 환유물이었을 것이다.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으며’, ‘쑥과 마늘만 먹으라’는 것은 사실은 모두 생산적인 것과 연관된다. 동굴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으나 그중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이다. 자궁의 의미가 강하다. 또한 죽음이나 신성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고구려의 東盟국은 두고 “동쪽에 큰 洞穴이 있으니 隧穴이라 한다. 10월이면 國中大會가 있었다. 이때 수신을 맞이해 굴, 동쪽 높은 곳에 모셔 놓고 제사했다. 수신을 깎아 만들어 신의 자리에 모셨다.”¹³⁾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렇듯이 동굴은 인류공통상징으로 죽음과 생명탄생이라는 양가적 가치

13)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동아출판사, 1992), 227-230쪽.

를 반영한다. 어둡고 축축한 죽음의 장소이면서 생명의 탄생의 장소이기도 한 동굴은 <단군신화>에서도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장소이면서 희망과 행복의 장소이기도 하는 양가적 기능을 하는 곳이 된다.

또한 쑥과 마늘은 모두 생생력을 증강시키는 식품으로서 쑥과 마늘만을 먹었다는 것은 남녀의 생생력에 도움을 주어서 인간 탄생으로 연결시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대목의 교훈은 결국 始祖母는 고행과 시련을 거친 德性있는 여인으로서 始祖를 생산했고, 또한 고조선의 건국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¹⁴⁾

결국 우리의 시조모인 웅녀는 생생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고와 고행을 거쳐 재생하는 지모신을 상징한다. 웅녀가 한 일은 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시조를 낳았으며 끊임없이 재생하는 속성을 통해서 인류의 되풀이 되는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웅인 것이다. 여신의 이미지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여러 시련과 고행을 극복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단군과 환웅에게 가려져 있는 은성화된 영웅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주된 서사담은 다음과 같다.

환인(천제) ↘

단군

웅녀(지모신) ↗

14) 강명혜, 「<단군시가> 새롭게 읽기」, 『동방학』 13집, 한서대학교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7. 14-23쪽.

2) 축소된 영웅-유화

‘유화’는 동명왕의 모친이며 동명왕과 더불어 子母神으로 추앙받았던 시조모이다. 시조모라는 점에서 웅녀와 동일하다. 웅녀는 단군신화에 등장 하듯이 유화는 동명왕편에 삽입되어 있다. 즉, 『삼국사기』와 『동국이상국집』, 『삼국유사』 <동명왕편>¹⁵⁾에 등장한다. 고려 중기의 문인 이규보가 영웅 서사시 ‘동명왕편’을 쓴 것은 1193년, 그의 나이 25세 때의 일이었다. 고주몽의 생애를 그린 이 ‘동명왕편’은 4000여 자에 이르는 장편으로서 오언시 282구로 짜여져 있는 서사시이다. 우리 민족의 기상을 잘 그려내고 있고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롭고 용맹스러운 영웅의 모습을 보임으로서 자 긍심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해동의 해모수(解慕漱)는 천제(天帝)의 아들로서 고니를 탄 100여 인의 종자(從者)를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채색 구름 속에 떠서 내려왔다. 성 북쪽에 청하(靑河)가 있고 거기에 하백(河伯)의 세 딸 유화(柳花)·훤화(萱花)·위화(葦花)가 있었는데, 해모수가 사냥을 갔다가 이들 세 미녀를 만나 그 중 맏딸인 유화와 결혼하도록 해달라고 하백에게 간청하였다. 하백은 해모수의 신통력을 시험한 뒤에 그에게 신변(神變: 人智로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변화)이 있음을 알고 술을 권하였다. 하백은 해모수가 술이 취하매 유화와 함께 가죽가마에 넣어서 하늘로 보내려 하였다. 그런데 술이 깬 해모수는 놀라서 유화의 비녀로 가죽가마를 찢고 혼자 하늘로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백은 유화를 꾸짖으며 태백산 물 속에 버렸다. 유화는 고기잡이에게 발견되어 북부여의 금와왕(金蛙王)에 의하여 구출되었다. 뒤에 유화는 햇빛이 비취어서 임신을 하고 주몽(朱蒙)을 낳았다. 처음에는 되크기 만한 아이어서 금와왕은 상

15) 이규보, 『동국이상국집전집』 권 제3 고을시, <동명왕편>. 이 책은 『舊三國史』를 근거로 했다고 알려짐.

서롭지 않은 일이라 하여 마굿간에 버렸는데, 말들이 이것을 짓밟지 않아 깊은 산속에 버렸더니 짐승들이 이것을 보호하였다. 알에서 나온 주몽은 골격과 생김새가 영특하여 자라면서 재주가 뛰어났으며, 금아왕 아들들의 시기를 피해 유화가 골라준 준마를 타고 부여를 떠나 남으로 가서 유화의 조력과 비류국(沸流國) 송양왕(宋讓王)의 항복을 받고 나라를 세우니 이것이 고구려의 건국이며, 그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이다. 종장에는 동명성왕의 아들 유리(類利)가 부왕(父王) 동명왕을 찾아 왕위를 계승한다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동명왕편>의 서문에서 이규보는 “처음 동명왕의 설화를 귀신(鬼)과 환상(幻)으로 여겼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한 결과 귀신이 아니라 신(神)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시로 쓰고 세상에 퍼서 우리나라가 원래 성인지도(聖人之都 ; 성인 세운 나라)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저작동기를 적고 있다. 서문에서부터 ‘동명왕’의 이야기에 대해 언급했듯이 텍스트 제목도 ‘동명왕편’으로 되어 있고 잠재 작가의 관심이나 그 후 모든 연구자의 관심은 오로지 동명왕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담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한 단군신화에서 보이는 3대의 일련의 구조와 유사하게 동명왕편도 조부인 해모수, 아버지 동명왕, 아들 유리로 이어지는 삼대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¹⁶⁾ 그러나 서사텍스트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동명왕의 아버지 해모수와 유화이야기이다.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동명왕편>에는 동명왕의 아버지인 해모수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6) 조동일이 “동명왕편은 삼대에 관한 이야기로 ‘영웅의 일생’에 맞게 구성되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9. 85쪽)고 한 이래로 황순구가 “성가족 삼대록”이라고 명명(황순구, 서사시 동명왕편 연구, 백산출판사, 1992, 43쪽)하면서 거의 모든 연구자가 여기에 동의하고 이는 실정이다.

“ 해동 해모수는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
처음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자신은 다섯 용의 수레을 타고
따르는 사람 백여 인은
고니를 타고 털깃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맑은 풍악 소리 쟁쟁하게 울리고
채색 구름은 몽게몽게 떴다”

...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천제의 아들이라는 것과는 동일하다.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는 수신인 하백의 큰 딸 유화와 관계를 맺게 된다. 즉 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제의 아들인 아버지와 수신의 딸 유화의 만남의 중요성이 제시되는 부분이다.

성 북쪽에 청하(지금의 압록강)가 있으니
하백¹⁷⁾의 세 딸이 아름다웠다.
압록강 물결 헤치고 나와
웅심 물 가에서 놀았다.
쟁그랑 딸랑 패옥이 울리고
부드럽고 가냘픈 모습 아름다웠다.

...

왕이 나가서 사냥하다 보고
눈짓을 보내며 마음 두었다.
곱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함이 아니라
참으로 뒤 이을 아들 낳기에 급함이었다.

17) 고구려 시조 주몽의 외조. 전설 상의 인물로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해모수와 사통하자 태백산 남쪽 우발수로 내쫓아 버렸다고 함.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해모수가 결연하고자 한 까닭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이다. 이는 마치 웅녀가 아들을 낳기 위하여 혼인하기를 빌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들의 결연은 ‘시조’를 낳기 위한 필요수순일 뿐이다. 결국 시조탄생의 필요충분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체성과 신분이다. 천제의 자손 아버지와 지신이나 수신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자손이 바로 한 국가의 시조라는 결과를 위해 대전제, 소전제가 전개된다. 천제의 아들들은 결핍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기에 어떤 모험이 수반되지 않지만 천제의 배필이 되기 위한 ‘여인’들은 거기에 대응되는 ‘시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용맹, 인내, 덕, 극복 의지’ 등이 수반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들 시조 서사담에는 아들의 영웅담 못지 않은 엄마의 영웅담은 주요하다. 단군신화에서는 서사담이 ‘단군 탄생’으로 끝난 것에 비해 동명왕편에서는 주몽은 탄생 이후 이야기가 지속된다. 즉 탄생부터 시련, 그리고 조력과 시련의 극복을 거쳐 왕위 등극까지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유리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즉 아들인 주몽의 영웅담이 보다 중요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사 진술 시점을 주몽에서 유희로 옮겨가 보면 주 영웅 대상은 달라진다. 즉 누구의 시각이나 언술시점이냐에 따라 이야기 구조는 달라진다.

 딸이 유희인데
 그 여자가 왕에게 붙잡혔다.
 하백이 크게 노하여
 사자를 시켜 급히 달려가서
 고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경솔하고 방자한 짓을 하는가
 회보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입니다.
 높은 문족과 서로 혼인하기 청합니다.

”

왕이 해모수의 왕비인 것을 알고
 이내 별궁에 두었다
 해를 품고 주몽을 낳았으니
 이 해가 계해년이였다.
 골상이 참으로 기이하고
 우는 소리가 또한 심히 컸다.
 처음 되만한 알을 낳으니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위 서사를 보면 유화의 결연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유화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유화와 인연을 맺은 인물이 누구인지, 어떻게 주몽을 낳았는지, 누가 도와주었는지 등에 대한 언급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시각에 따라서 이야기 구조의 주인공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작가의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이야기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은 『삼국사기』를 보면 더욱 수궁이 간다. 『삼국사기』는 유화관련 부분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화가 지닌 신성성 부분이나 유화의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의 작가관이나 이념, 태도,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시조 동명성왕의 이름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이다. 이보다 먼저 부여왕 해부루는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 대를 이을 자식을 빌었다. 왕이 탄 말이 흐린 물가에 이르렀을 즈음에 큰 돌이 마주서서 보고 눈물을 흘렸다... 중략 ...금와가 왕위를 계승했다. 『삼국사기』

두 서사담의 서술자의 시각과 초점은 이렇듯이 차이를 보인다. 『동국이상국집』 유화이야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삼국사기의 저자는 금와

왕한테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작가의 서술시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동명왕이 영웅이라는 점과 영웅담의 기본 틀은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진술이 일치한다. 동명왕에게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①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②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③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④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른다 ⑤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난다 ⑥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친다 ⑦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된다.

이렇듯이 동명왕의 일대기는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영웅담(신화적 영웅담)의 기본 틀에 그대로 대입된다. 동명왕은 천제의 아들과 수신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알로 태어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또한 버려져서 죽을 뻔 했으며,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난다. 조력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으며, 자라서 다시 위기에 처했다가 이를 극복하고 국가를 건국한다는 서사축으로 진행된다. 이런 이유에서 동명왕은 틀림없는 ‘영웅’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유화의 영웅적 면모는 어떻게 찾아야할까? 사실 동명왕에게 초점을 맞추면 유화는 그냥 동명왕의 어머니일 뿐이다. 그러나 누구의 시각과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의 내용도 주체자도 달라진다. 따라서 유화의 입장에서 서서담을 따라가면 이 이야기담의 주체자는 엄밀히 말해 ‘유화’이다. 결국 유화의 결연담이며, 유화의 시련담이며, 유화가 아들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며 자신도 승리하는 ‘영웅담’인 것이다. 『동국이상국집』과 『삼국유사』의 서술 시각은 어디까지나 유화를 주 인물로 다루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금와가 등장한 다음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金蛙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물으니 그 여자는 말했다. “나는 河伯의 딸로서 이름을 柳花라고 합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물 밖으로 나와서 노는데, 남자 하나가 오더니 자기는 천제의 아들 解慕漱라고 하면서 나를 熊神山 밑 鴨綠江 가의 집 속에 유인하여 남몰래 정을 통하고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서 드디어 이곳으로 귀양보냈습니다.”¹⁸⁾

이렇듯이 동일한 <동명왕편>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도 서술자의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주인공이라든가 사건 행위의 전개 내용 등이 차이를 보인다. 『삼국사기』를 제외한 두 작품에서는 동명왕 못지않게 유화에 대해서도 주인공으로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명왕이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실 배후에는 영웅을 도와주고, 혹은 지도하고, 예시해 주는 유화의 진면목이 씨줄날줄로 얽혀있어서 직조되고 있다. 따라서 동명왕 영웅담 구조와 유화의 영웅담 구조는 서로 동전의 앞뒤면처럼 하나의 구조 속에 혼효되어 있다. 이를테면 유화는 이미 앞날을 예견하고 주몽의 앞날을 위해 대비를 해 준다. 이 과정에서 유화의 신성성 및 뛰어난 능력이 들어난다. 유화는 주몽이 준마를 고르게 조연을 해주며 주몽이 자립하도록 관리하며 주몽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이 국가를 건국할 수 있게끔 식생활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오곡, 혹은 보리를 보내줌).

이렇게 볼 때 동명왕편에는 동명왕의 위대한 여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유화의 영웅적 측면도 함께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화를 신화적 인물이나 지모신으로 본 경우는 다수이지만¹⁹⁾ 영웅으로 본 예는 거의 없다. 그러나 유화는

18) 일연, 『삼국유사』권 제1. 고구려조. 『삼국사기』에는 주로 유화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수록하지 않거나 간단히 서술.

19) 이종주, 강명혜, 윤혜신, 송정화, 이유경 등, “유화는 사후 여신으로서 존경을

영웅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단지 잠재 독자나 잠재 작가 혹은 연구자에 의해 간과되거나 의식하지 못한 채 축소된 영웅인 것이다. 결국 유화를 주인공으로 보는 시각과 시선으로 서사담을 따라가며 유화의 위치를 정립해 주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다. 영웅으로서의 유화를 주체 축으로 해서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①고귀한 탄생-유화는 수신의 딸로서 고귀하게 태어난다. ②1차 시련-영웅의 삶이 탄생부터 시련에 노출되듯이 유화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 유화는 해모수와 사랑 이후 해모수에게도 버림받으며, 아버지로부터는 입술이 늘어지게 하는 벌을 받는다. 이 부분은 신라의 알영에게서도 보이는 모습이다. ③조력자의 도움-이 때 모든 영웅담에 등장하듯 조력자의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금아왕이다.²⁰⁾ 금와왕과 살면서 해모수의 아들이 분명한 ‘알로 태어난’ 동명을 키운다. ④2차 시련-하지만 2차 시련이 시작되는데 이는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 동명은 아기 때 유기되며, 금와왕의 아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는다. 그러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유화는 아들을 구하고자 방비책을 마련한다.(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를 건설하는 국가건설 주체자를 구하는 일) ⑤승리담-준마를 골라주고, 계책을 알려준다. 이 일은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비범한 일이다. 게다가 동명왕이 탈출한 뒤 神鳩를 시켜 곡식단을 동명에게 보낸다. 이 곡식은 오품이라는 표현과 보리라는 표현이 혼재하지만 의식주 중 제일 중요한 ‘食’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상징적 코드임에는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비둘기 앞에 ‘神’자를 붙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결국 비둘기는 신의 사자인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신은 곡식을 관장하는 곡모신에 해당될 것이다. 서사담에서도 “神母의 사자가 되어 왔다”고 표현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점에서 유화는 확고하게 영웅

받으며 동명이 사후에는 母神과 子神인 子母神이 되어 추앙을 받는다”.
20) 금와왕은 유화가 죽었을 때 神廟도 세워주는 인물이다.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유화는 물의 神인 河伯의 딸로서, ‘압록강가’에서 사랑을 나누며 임신 전후로 물을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水神의 면모를 보이며, 아들인 주몽(동명왕)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神異로서 그 사실을 알고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神鳩인 ‘비둘기’를 통해 곡식을 관장하는 등, 곡모신적 면모를 보인다.²¹⁾ 사실 水神과 地母神(곡모신)의 교차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²²⁾ 그녀는 또한 고구려 왕실의 母神으로서, 해모수가 사후 神座에서 빠지고 난후 동명왕인 아들신과 짝해서 고구려 시조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고구려 왕실에 있어서의 모신숭배는, “**태조왕 69년 10월에 부여로 가서 대후묘에 제사했다-太祖王六十九年冬十月 幸扶餘祀大后廟**”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유화가 女神으로 섬겨졌던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北史에서 말하길, 고구려는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淫祀가 많다. 神솥은 두 곳이 있었는데, 첫째는 부여신으로 나무에 부인상을 새겼고, 둘째는 고등신으로 이는 시조 부여신의 아들이다. 아울러 관사를 두고 사람을 보내어 수호하게 하였는데 이를 하백의 딸과 주몽이라한다고 했다”²³⁾

지모신으로서의 유화는 지금까지도 발해부근에서는 여신으로 봉안되기도 하는데, 버드나무가 물을 끌어들이는 나무로 인식되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유화’가 지니는 상징성이 추출된다. 즉 유화는 바로 물과 연결될

21) 강명혜, 『豊饒의 노래로서의 <雙花店>』, 『고전문학연구』 제 11집, 한국고전문학회,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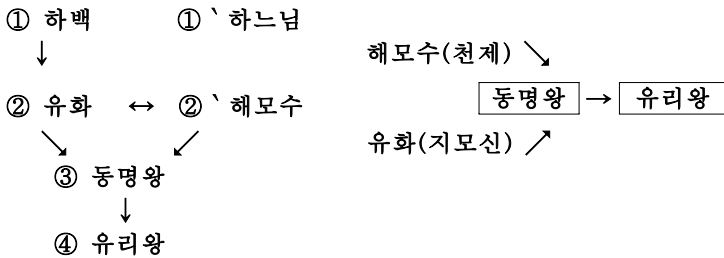
22)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 102쪽.

23) “北史云 高句麗常以十月祭天 多淫詞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二曰高登神 云是始祖夫餘神之子 竝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朱蒙云”, 『삼국사기』 권32. 雜誌1. 祭祀.

수 있으며, 물의 상징성과 치환 가능한 인물로 환원된다. 또한 버드나무 여신 송배는 예전에는 동북아시아에서 보편적인 신앙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부에서는 신앙의 대상이라고 한다.²⁴⁾ 동명왕을 주인공(actant)으로 볼 때 유화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유화를 주 actant로 본다면 서사담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고귀한 탄생(水神의 딸)-1차 시련(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아버지한테 버림받음)-조력자의 도움(금와왕이 도와줌)-2차 시련(아들의 위기상황)-곡모신으로서의 능력 과시(준마 고르기 및 곡식 관장) 및 사후 여신으로서 추앙

이렇듯이 유화는 당당히 영웅에 해당된다. 모든 시련을 당당하게 극복하고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인물인 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또한 여러 사람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는 등 아무 하자 없는 위대한 영웅인 것이다. 단지 편견과 오독, 그리고 시각의 외면에 의해 한없이 축소된 영웅인 것이다.



24) 김재용 · 이종주, op. cit. - 앞의 책.

3) 함축된 영웅- 수로부인

『삼국유사』 奇異 제 2에 보면 <수로부인>이라는 제목 하에 수로부인과 관련된 부대설화와 시가가 등장한다. 제대로 완결된 서사담이 아니라서 사건 전개나 수로라는 인물에 대한 진술이나 특별한 사항 등이 모두 생략된 상태이다. 주지하다시피 시가의 특징은 생략, 압축, 혹은 이미지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상당히 상징화, 응축화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행간이나 압축된 이면을 보면 ‘수로’라는 인물이 범상치 않으며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응축, 함축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일련의 서사담을 구체적으로 구축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모든 제약과 좋지 않은 조건하에서도 그 범상치 않은 ‘여성’을 놓치고 싶지 않은 열망과 이 정도의 편린적인 기록이면 주 인물인 수로부인은 대단히 영향력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마치 조각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수로의 정체성이나 됨됨이 등에 대해 재구하고자 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성덕왕 때 순정공이~”로 시작되는 <수로부인>항 바로 전에는 다음과 같은 <성덕왕>에 대한 기록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 33대 성덕왕 신룡 2년 丙午(706)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몹시 굶주렸다. 그 이듬해인 丁未년(707) 정월 초하루부터 7월 30일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곡식을 나누어주는데 한 식구에 하루 三升씩으로 정했다. 일을 마치고 계산해 보니 도합 30만오백석이였다. 왕이 太宗大王을 위해 奉德寺를 창건하여 7일간 仁王道場을 설치하고 大赦令을 내렸다. 이 때에 비로소 侍中이라는 직책을 두었다. 『삼국유사』, 권 제 二, <聖德王>

이렇듯이 성덕왕 때의 상황이 먼저 제시되면서, 그 다음 성덕왕 때에 순

정공이 수로부인과 운운하며 사건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보아 두 사건도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성덕왕 시절 706-707년까지 2년 동안 지속된 지독한 가뭄과 수로부인 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행간의 내용까지 살펴보면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 백성들이 엄청나게 굶주렸고 이러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정월 초하루부터 7월 30일까지, 즉 추수하기 전까지 국가에서 구휼미를 나누어 주었으며, 왕은 가뭄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절을 창건하고 도장을 설치하여 빌고 또 대사면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전개된 후 <수로부인>의 서사담이 뒤따른다.

聖德王(702~737)때에 純貞公이 江陵(지금의 溟州)太守로 부임해가는 도중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 곁에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 절벽이 바다에 맞닿았는데 높이가 천길이나 되었으며, 그 위에는 철쭉꽃이 만발해 있었다. 순정공의 부인 水路는 그 꽃을 보고 옆사람들에게 “저 꽃을 꺾어다 내게 줄 사람은 없는가?” 하니 모시는 사람들이 모두 “거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고 난색을 표하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 때 암소를 끌고 곁을 지나가던 老人이 있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는 그 철쭉꽃을 꺾어 가지고 와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바쳤으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뒤 편안하게 이틀동안 길을 가다가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용이 나타나더니 부인을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순정공은 발을 동동 구르며 땅을 쳐 보았지만 아무 방법이 없었다. 또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하였는데 지금 바닷속의 용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 경내의 백성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며 지팡이로 강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의 말대로 하였더니 용이 부인을 모시고 나와 도로 바치었다. 순정공이 바닷속에 들어갔

던 일을 부인에게 물었더니, 부인은 “칠보 궁전에 음식이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가 있고 깨끗하여 세상에서 흔히 먹는 익히거나 삶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수로부인의 옷에도 향기가 배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니었다. 수로부인의 자색과 용모가 절세가인 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神物들에게 붙들리었다. 이 때 여러 사람이 부른 海歌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龜乎龜乎出水路 거북아 거북아 水路夫人을 내놓아라
 掠人婦女罪何極 남의 부녀 악탈한 죄 얼마나 큰가.
 汝若悖逆不出獻 네 만약 거역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入網捕掠燔之喫 그물로 잡아내어 구워 먹겠다. <海歌詞>

노인이 부른 獻花歌는 이러했다.

달배 바회 궁희
 자넌은손 암쇼 노히시고
 나홀 안디 붓흐리샤든
 꽃홀 것가 받즈보리이다 <獻花歌>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水路夫人)

<수로부인> 이야기가 이렇듯이 “성덕왕 때”라고 시작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로부인은 그 바로 전에 제시된 성덕왕 때의 사건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이야기담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 사건은 강릉 태수로 부임해 가던 순정공 일행이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다가 수로부인이 느닷없이 천길 낭떠러지에 피어있는 철쭉꽃을 갖고 싶어하면서부터 야기된다. 수로부인은 주변 인물들에게 철쭉꽃을 꺾어달라고 요청하지만 너무 위험한 장소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 때, 한 손에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꽃을 꺾어다 바치면서 노래를 불렀

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의아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특이하기만 하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야기되기 전 언술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뒤 편안하게 이틀을 가다가~” 편안하게 이틀 잤다는 것은 진술된 사건 외에도 많은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맨 마지막 진술 부분이다. “**수로부인의 자색과 용모가 절세가인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여러 차례 神物들에게 붙들리었다**”.

왜 수로부인은 이렇듯이 이상하고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수로부인은 왜 신물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가? 첫 번째 진술담에서부터 의문은 꼬리를 문다. 수로부인은 왜 그렇게 철쭉꽃이 갖고 싶은지? 노인의 정체는? 젊은 시종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낭떠러지를 어떻게 올라가서 꺾었을까? 손에는 왜 소를 끌고 있었을까? 남편의 답답한 반응은? 등등 모두가 상식적이지 않다.

우선, 노옹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보자. 노옹을 그 동네의 농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부로 본다 해도 의문은 여전하다. 동네 지리에 밝고, 또 일하러 가는 농부라 소를 끌고 있다손 치더라도, 한낱 농부의 신분으로서 시종들을 해치고 태수의 부인한테 말을 걸고 또 노래까지 지어 바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다. 또한 부인의 일련의 행동과 말도 상식을 초월한다. 남편의 부임지를 향해 가던 중에, 그것도 위험한 장소에 있는 꽃을 굳이 따달라고 한다는 점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로부인은 어린애도 아니고, 무분별한 사람도 아니다. 그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당대의 상층 여인이다. 게다가 신물들한테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녀는 어째서 이렇듯이 무모한 命을 내린 것일까? 남편인 순정공의 태도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내의 이 무모한 請에 대해 왜 묵묵히 관망만 했을까? 당연한 듯이 추이를 지켜보기만 했을까. 이런 모든 점에서 볼 때, 이 텍스트는 단순한 표면적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모든 내용을 압축 및 상징적 의미로 환원시킴이 마땅하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꽃’이 아닐까? 많은 연구자들은 <헌화가>의 꽃을 단순한 ‘꽃’으로는 보지 않는다. 대부분 ‘꽃’을 供物로서 ‘생생력’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사실 ‘꽃’은 신에게 바치는 供物이고 인간과 신, 즉 地上的인 것과 天上인 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한다.²⁵⁾ 만약 꽃이 생생력을 상징한다면 여자(수로부인)가 원하는 ‘꽃’은 남성 상징도 되지 않을까? 사실 ‘꽃’의 古語는 ‘꽃’, 또는 “고지”로서 성행위나 성기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獻花歌>는 수로부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된 老翁(神)의 사랑과, 이에 따른 생생력을 표상한 노래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화가> 작자로 알려진 노옹이란 출산과 관련있는 신화적인 존재로서 상대 모계사회의 유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는 견해²⁶⁾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또한 水路라는 이름도 물과 생생력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유화가 물과 관련이 있는 것과 상통한다. 사실 수로의 정체를 巫로 보는 견해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볼 때, 수로부인(女神)과 꽃으로 상징된 노옹(男神), 그리고 생생력, 생생력에 수반되는 豐饒祭儀²⁷⁾와 관련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경남은 “척축화가 신성한 장소에서 절정에 달한 盛開의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생명력 상징과 아울러 신과 인간의 교접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 꽃을 꺾을(折花) 수 있음으로 제의가 지닌 성격을 생각할 때 제사를 지낸 수로부인은 그 제의가 神에게 감응되기를 응당 기대 했을 것이고 그 응답을 어떠한

25)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96, 294쪽.

26) 최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사, 1983, 185쪽.

27) “산신으로 현신한 노인이 꺾어준 척축화는 수로부인의 생명력과 함께 다신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 의미는 수로부인의 신적 기능의 부여로서 풍농, 풍어의 다산적 제의와 안전행로, 집단의 안녕 등 복합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김경남, “水路傳承으로 본 獻花歌 연구”, 관동어문학 제 6집, 관동대, 관동어문학회, 1989, 11쪽) 와 같은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형태로든 수로부인이 확인하고 싶어했을 것이다. 이 제의는 수로부인이 거쳐야 할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제의는 새로운 곳에서의 갈등 해결 방법이며, 수로부인이 꽃을 원하는 것은 척축화는 神的 상징물이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있어서 매개물이 되기 때문이다. 종자들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수로부인이 새로운 곳에서 겪는 갈등의 표출이 심화되어 위기를 맞는 장면이다.”²⁸⁾고까지 보고 있다. 아무튼 수로부인과 꽃과 암소와 노인은 새 생명 및 풍요 기원과 관련이 있음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듯이 수로부인의 願望이 해결된 후 이틀 뒤에 또 사건이 일어난다. 역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다. 아무리 아름답다고는 하나 지 아버를 대동한 여인이 빈번히 피납된다는 것과 납치한 대상이 비록 神物이라고는 하지만 돌아온 부인에게 평정심을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이 어떻냐고 묻는 남편의 태도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도 표면적인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내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주목할 점은 이는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과, 龍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돌아온 여인의 몸에서 향기가 진동했다는 점이다. 이는 용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돌아온 수로부인의 언행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만족함을 표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우선 피납장소에 대한 장황한 묘사(七寶宮殿)나, 음식에 대한 만족감(“달고 부드러우며 향기가 있고 깨끗하여 이 세상 음식이 아니다”) 표명은 자신의 납치 상태를 불편해 하거나 꺼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기뻐했음을 반영한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 이야기담의 원형 역시, 男女神의 교합과 풍요적 상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²⁹⁾

이 두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즉 공간적 배경이 ‘바닷가’라는 점에

28) 김경남, 『水路傳承으로 본 獻花歌 연구』, 『관동어문학』 제 6집, 관동대, 관동어문학회, 1989, 11쪽.

29) 강명혜, 『江原道 民俗信仰의 特性과 起源 및 文學作品과의 관련성』, 『강원문화연구』 제19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0. 110쪽.

서 동일하고, 사건이 야기된 시간도 ‘점심을 먹게 되었을 때’로서 시간적 배경도 동일하다. 즉 ‘바다’인 ‘물’과 ‘음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신과 수로부인의 접합(만남) 또한 ‘노인’(현화가)과는 씨니피앙만 다를 뿐 이면적 측면에서의 씨니피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담은 어떻게 보면 동일 이야기의 반복담일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과 곤란한 상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수로부인, 바다와 점심으로 상징되는 ‘물과 제물’, 이어지는 노래, 개인의 노래와 많은 사람들의 집단 노래. 그리고 가뭄으로 힘든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련을 타개해 나가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수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제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왕이 비록 한자는 다르지만 동일한 ‘수로’라는 점, 둘 다 3월(봄),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가락국기>는 3월 禊浴日-물가에서 액을 떨쳐내는 날, <수로부인>의 경우 곤란한 상황은 액을 떨쳐내는 것과는 연관시킬 수 있다), 또한 수로왕을 달라고 하는 노래 <구지가>(생명 탄생)와 수로부인을 달라고 하는 노래인 <해가사>(풍요 주체)도 거의 동일한 주제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든 점에서 볼 때 수로부인은 평범한 여성이 아니며 풍요적 주체로서 고난을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성덕왕대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파견된 순정공과 수로부인의 임무에 해당되는 복합적 제의로서 물을 주재하는 신의 성격을 지닌 용신에게 제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해신은 수신으로 용신을 상징하고 있다.”³⁰⁾라거나, “수로부인의 고난은 모든 집단의 고난을 의미한다. 천길 벼랑위이 척촉화

30) 김선풍, 『동해안의 성황설화와 부락제고』, 『관대논문집』 제 6집, 관동대출판부, 1978, 28쪽.

를 매개로 해서 산신으로 현신한 노인의 절화, 현화함으로써 집단간의 갈등이 해소되었고, 망해제로서의 둘째 전승에서는 제의에 집단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海歌를 부름으로 하여 수로부인의 고난을 함께하고 그 구출을 도와주고 있다. 이는 집단의 고난 극복을 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 제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순정공의 부임지 경로가 동해를 끼고 있는 행로였기에 안전행로를 기원하고 바다에 대한 제의, 즉 가뭄의 원인으로 인식되어진 집단의 위기, 집단간의 화합을 의미하는 순정공의 파견 임무에 부합하는 것 등으로 보아야 한다.”³¹⁾라는 견해는 타당하다.

수로부인도 이렇듯이 신물들이 모두 주목하는 ①고귀하고 신이한 인물이며, ②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꽃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에서 야기되는 위기상황을 겪는다는 것, ③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노옹이라는 조력자, ④해룡의 납치라는 2차 시련, ⑤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일련의 영웅담의 기본 틀에 부합함으로써 영웅으로서 손색이 없다. 비록 암시와 상징, 축약, 알레고리로 되어 있어서 이를 해독하는데 수월하거나 단선적이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풍요와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한 인물로서 당당한 영웅에 해당된다. 그러나 함축된 영웅인 것이다.³²⁾

31) 김경남, 앞의 논문, 16쪽.

32) 이유경도 “수로부인의 이름다음 자체가 신성한 능력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근원적인 여성성이 美라는 특정한 외부적 표지로 드러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로부인이 신물들에게 잡혀갔다는 내용은 곧 수로부인이 자연이나 물과 통하는 능력, 즉 자연과 합일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능력이 미라는 특정한 기능으로 분화되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신화군들이 여성은 생산성과 풍요성을 바탕으로 한 신성한 여성성을 근원으로 하여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거나 문화를 창조, 전파함으로써 기존세계의 불완전성과 미완성을 주체적으로 완성시켜 나간 인물들이다”라고 하고 있다. 앞의 책, 92쪽.

영웅으로서의 수로부인→고귀하고도 신이한 신분→1차 시련(칠쭉꽃을 필요로함)→조력자(노웅)→2차 시련(바다용에게 잡혀감)→조력자(많은 사람들의 구호)→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풍요와 생명 관장,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

4) 유사 영웅- 흥계월

조선시대 중후기는 많은 고소설이 등장했던 시기이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점은 ‘영웅담’이 많이 양산되었는데 그 중 ‘여성영웅담’도 근 40여 편³³⁾에 이를 정도로 많이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조처럼 여성에게 많은 제약이 있던 시기에 여성영웅담이 등장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며 기존 연구가 있었다.³⁴⁾ “흥계월전은 여성영웅소설 중에서도 여성의 주체성과 우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작품으로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나며 사회에서나 가정 내에서 여성이 주도적 위치를 차

33) <금향정기>, <백학선전>, <이대봉전>, <정수정전>, <황운전>, <김태자전>, <화옥쌍기>, <장국진전>, <이봉빈전>, <이학사전>, <음양옥지환>, <사각전>, <음양삼대성>, <신유복전>, <유문성전>, <정기전>, <양주봉전>, <박씨전>, <남강월전>, <오선기봉>, <옥루몽>, <하진양문록>, <군익중전양주봉전>, <현씨양옹쌍린기>, <흥계월전>, <계상국전>, <석태룡전>, <설소저전>, <운향전>, <옥수기>, <방한림전>, <명주기봉>, <벽허담관제연록>, <위봉월전>, <흥연전>, <최익성전>, <재생연전>, <유씨삼대록>, <화정선행록> 등 앞에서 제시된 관련 서적이나 논문들 참조.

34) 설인귀전의 영향요소가 가장 많은 <황운전>, <정수정전>, <흥계월전> 등 여성의 남성지배가 노골적인 유형이 먼저 생겨났고, 두 번째는 이대봉전, 세 번째는 옥루몽 마지막으로 박씨전 장국진전 등 그 모방요소가 줄어들어 이조적으로 수용, 변용된 작품들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국어국문학』, 62호, 국어국문학회), 정명기는 출현 당시 여성의 사회 가정적인 불만기재와 무능력한 남성의 실상, 몰락계층의 꿈 등이 다각도로 작용해 여성영웅소설을 낳았다고 추정했다. 정명기, 「여걸계소설의 형성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대출판부, 198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9

지하는 것이 특징이다.”³⁵⁾ “이러한 작품의 내용으로 인해 <홍계월전>은 일찍부터 대표적인 여성영웅소설로서 연구되어 왔다.”³⁶⁾ “그러므로 홍계월전은 여성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사회진출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더 나아가 가부장적인 인식에 기반한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지양하고자 하는 여성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라고 하겠다.”³⁷⁾ “영웅적 활약의 과정에서 남장을 한다는 점과 여성으로서 ‘너무 강하게 형상화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여성의 남성화나 남성성의 찬양을 위한 또 다른 유형의 ‘잘못된 재현’으로 간주되어 앞의 시각과는 상반된 시각의 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에서의 남장모티프는 여성 주인공이 자신

35) 이인경은 “홍계월은 여성 영웅들 중 가장 신장된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성을 가장 많이 상실한 주인공”이라고 하고 있다. 『홍계월전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36)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게 해 주는 소설적 장치는 女化爲男, 곧 男服개착이다”, 장시광,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16쪽. 민찬 역시 “여주인공이 남복을 입고 벗는 계기와 의도를 해명하는 작업은 여성영웅 소설을 이해하는 관건”이라 하였다.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6. 19쪽, 박명희, “홍계월전은 여성중심적 시각이 확대된 작품이다... 그러나 여화위남의 사회적 의미는 공적 영역에서의 능력발현은 남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성역할 분담이 역설적 확인”이라고 하면서 계월이 여화위남하여 국가에 공을 세우는 영웅적 행위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가짜 남성으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95쪽. 이인경은 “홍계월전의 계월이 여성성보다 평국의 남성성을 찬양하고 이어 홍계월은 여성영웅들 가자 신장된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인물이자 여성성을 가장 많이 상실한 주인공이다. 앞의 논문, 243쪽. 심진경은 “계월은 남성 못지 않은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대리인 혹은 대리 남성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결론에서는 그런 남성의 모습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홍계월전이 다른 여성군담소설에 비해 남성의 지배정도가 강력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여전히 여성을 가부장제적이고 유교적인 틀 안에 가두려는 이데올로기를 감추고 있다.” 『여장군계 군담소설-<홍계월전>연구』,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77쪽.이라고 홍계월전의 한계를 지적한다.

37) 이유경, 113-115쪽.

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하는 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남장을 했을 때와 여자임이 밝혀진 후의 여성 인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해 남녀의 성별이 단순한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라는 인식도 보여준다.”³⁸⁾라는 견해 등, 특히 여성 영웅으로서 <홍계월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홍계월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명나라 때 홍무와 양부인은 자식이 없다가 뒤늦게 계월을 낳는다. 어느 날 장사랑이 일으킨 반란을 피하다가 양부인은 수적에게 잡히고, 계월은 버려진다. 홍무는 도적에게 거짓 항복한 죄로 벽파도에 귀양 간다. 이후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되고 평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곱 도사에게서 수학한다. 한편 수적으로부터 도망친 양부인은 절에서 지내다가 꿈에서 본 데로 찾아가 남편을 만난다. 과거에 급제한 평국과 보국은 서달의 난이 일자 각각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전하고, 여기에서 평국은 우연히 친부모를 찾는다. 천자는 전공(戰功)을 세운 평국을 청주후에, 그의 부친을 위국공에 봉하고, 전쟁으로 몸이 쇠약해진 평국을 진맥하게 한다. 이때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지만, 천자는 그녀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 결혼시킨다. 또다시 반란이 일자, 평국은 위기에 처한 보국과 천자를 구하고 나라를 지킨다. 이후 평국과 보국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홍계월>의 서사담은 고전영웅소설담의 ‘영웅’의 기본 틀이라든가 그 족적에 정확하게 대입된다. 즉 ①홍계월은 신이하고도 고귀하게 태어난다. 어머니 양씨가 선녀 꿈을 구고 계월을 잉태했다. ②또한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인다. ③첫 번째 시련은 다섯 살 때 반란과 도적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지고 물에 던져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④이 때 조력자는 무릉포에 사는 여공으로서 계월을 구해주게 되고 여공의 밑에서 자라고 공부

38) 이유헌, 앞의 책, 189쪽.

하고 술법을 익히는 것이 해당된다. ⑤계월은 남장을 하고 과거에 응시 장원급제함으로써 시련을 극복한다. 미래의 남편이며 함께 자란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한다. ⑥홍계월의 두번째 시련은 여성임이 탄로나고 보국과 결혼해서 보국과 갈등관계에 빠지는 것과 국가가 다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이다. ⑦계월은 다시 전쟁터에 나가 이를 평정하고 나라를 구하게 되며, 보국과 화해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행복한 결말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인공의 고귀한 출생 비범한 능력 → 주인공의 개인적 시련 →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의 극복 → 국가적인 시련 → 국가적인 시련의 극복 → 결연 및 부귀영화, 천하 평정

이렇듯이 완벽하게 영웅담의 기본 틀에 부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소설 텍스트 속의 여성 주인공인 계월은 완전한 영웅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다른 여성 영웅담에서처럼 텍스트 속에서 ‘여화위남’, 즉 남복을 입은, 결국 남성으로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씨니피에로 보았을 때 여성영웅이라 할지라도 표면적 씨니피안은 어디까지나 남성영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논의에서는 한결같이 진정한 여성영웅이라고 정의 내리기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사실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적 영웅이미지는 전사적 의미로만 주로 한정하고 있기에 남성적인 힘으로만 영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홍계월은 모든 여성 영웅담 텍스트 중에서 가장 남성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했고 전투에서 가장 우월했다. 심지어 여성이라는 정체를 밝히고 결혼한 다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전투에 참여해서 적을 무찌르기까지 한다. 결혼 후 출정 시에도 역시 남장을 하고 출정한다. 잠재작가는 이렇듯이 홍계월의 여성영웅 정립을 위해 완벽하게 남성 영웅과 부합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당대의 영웅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대 시대적 조류나 이념 등으로 보았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기에 ‘남장’을 굳이 시켰을 것이며, 시대적 배경도 명나라 시기로 설정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렇듯이 “‘홍계월전은 솔직히 여태까지 읽었던 고전소설 중 가장 파격적이었다’는 홍계월전의 텍스트 구조 속에서조차 여성 그대로의 특성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자리매김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홍계월전류는 사실상 진실한 의미의 당당한 여성영웅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주저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³⁹⁾와 같은 견해가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웅의 정의는 확대되어야 한다. “영웅은 사고와 행위에서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여 일상의 속박으로부터 새로운 모험과 지평을 제시하는 인물이며 변화와 개조를 요구하는 사회적 심리로부터 태어난다”⁴⁰⁾고 보았을 때 영웅은 성별 조건, 시대적 조건을 넘어서는 존재여야 하며, 존재인 것이다. 또한 군사적 용맹을 이룰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강인함은 더 이상 영웅의 필수 덕목만도 아니다.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개념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후천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조선조 여성 영웅소설은 비록 픽션이기는 하지만 작가나 잠재작가들의 의식구조 속에 ‘남성’만이 위대한 영웅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배태된 산물이며, 또한 비평가들 역시 “‘여화위남’이기에 홍계월전류의 여성영웅소설은 진실한 의미에서 여성영웅담이 아니다. 혹은 부족하다”는 평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여성영웅의 한 시대적 특징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여화위남이 아쉬운 측면이기는 해도 조선시대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여

39) “여성영웅소설은 얼핏보기에는 여성의 신분상승이라는 면에서 근대의식을 내보이는 것 같지만 그 역시 고소설로서의 제반 여건을 벗어나지 못하는 있다는 점을 아울러 살펴야 할 것이다.” 이유경, 앞의 책, 530쪽. 뿐만 아니라 <홍계월전>을 다룬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거의 동일하다.

40) 정금철, 『영웅의 자아실현과 여성 영웅주의에 대하여-영웅담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서강어문』 2집, 1982.

성영웅의 특질로 인정하고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여성영웅 소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누구’에 의해 창작되고 수용되었는가, 당시의 잠재작가나 독자의 층위에서 살펴보고 인식해야 한다. 이렇듯이 영웅의 정의를 확대하고 소홀하거나 간과했던 텍스트의 이면, 틈, 행간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선조 중 많은 여성 영웅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여성무속신들은 거의가 영웅담의 구조를 보인다.

3. 결 언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표 영웅은 주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고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담’은 ‘여화위남’을 해서 ‘남성’으로 분장하고 활약한 후 얻은 칭호였기에 진정한 의미의 여성 영웅은 부재한다는 것이 기존 시각이었다. 그러나 ‘영웅’이라는 어휘의 표상성은 불변이지만 그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표의성은 사실 古今東西에 따라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영웅이란 고전소설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며, 또한 박제된 씨니피에도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본고에서는 헤게모니를 지닌 남성적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우리나라 여성 영웅의 모습을 찾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여성 영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작가나 잠재작가적 시각, 혹은 해석자의 시각이나 시선에 따라 은성화되거나, 축소, 혹은 함축되거나 유사한 영웅의 모습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변두리적 시각, 소외된 사각지역을 주축으로 삼아, 기존의 시각에서 놓쳤거나 고의적으로 무신경하게 넘어갔던 것을 찾아 규명하고 재해석하니 우리나라에는 당당한 영웅이 여럿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시조모인 웅녀는 생생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고와 고행을 거쳐

재생하는 지모신을 상징하고 있었다. 용녀가 한 일은 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조모로서 시조를 낳았고 끊임없이 재생하는 속성을 통해서 되풀이 되는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속성을 지녔으며, 기이한 탄생(꿈)→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시련)→조력자(환웅)→인간이 되었지만 배필이 없음(2차 시련)→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획득(始祖母)하는 영웅의 일대기를 보임으로서 당당한 영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잠재 작가의 남성적 시각에 의해 단군과 환웅에게 가려져 있는 은성화된 영웅이었다.

고구려의 시조모인 유화 또한 당당한 영웅에 해당된다. 모든 시련을 당당하게 극복하고 많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인물인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은 당당히 꼭모신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는 등 위대한 영웅이었다. 단지 편견과 오독, 그리고 시각의 외면에 의해 그 동안 축소된 영웅이었다. 유화도 최소한의 영웅 일대기의 기본 틀을 지니고 있었다.

수로부인도 신물들이 모두 주목하는 고귀하고 신이한 인물이며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꽃을 구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위기상황과 이를 도와주는 노옹이라는 조력자, 그리고 해룡의 낚치라는 2차 시련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영웅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비록 암시와 상징, 축약, 알레고리로 되어 있어서 이를 해독하는데 수월하거나 단선적이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풍요와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한 인물인 수로부인은 당당한 영웅에 해당된다.

<홍계월전>을 비롯해서 고전소설 텍스트 속의 주인공(actant)들을 그동안 텍스트 구조 속에서 여화위남, 즉 남북을 입고 영웅적 행위를 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당시 작가나 잠재작가들의 의식구조 속에 '남성'만이 위대한 영웅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배태된 산물이며, 또한 비평가들 역시 비슷한 시각을 지녔기에 부여된 평가였다. 이러한 점이 아쉽지만 이러한 측면도 조선시대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의 특질로 인정하고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 헤게모니를 지닌 남성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여성영웅은 부재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성영웅은 작품 속에서 은성화되었거나, 축소되었거나, 함축되거나 유사 영웅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문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듯이 공시적 통시적 의미에서 영웅의 의미를 확대하고 남성적 시각이나 남성의 언어, 남성의 해석에서 벗어나 언술의 표면, 틈, 이면, 행간을 통해서 기존의 시각에서 놓쳤거나 고의적으로 무신경하게 넘어갔던 것을 찾아 규명한다면 우리 선조들 중 여성영웅은 다양하고 많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성이나 신분적 요인에 의해 한 구석으로 밀려난 소외 집단의 숨죽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자리매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국이상국집』, 『고전소설전집』
- 강명혜, 「豊饒의 노래로서의 〈雙花店〉」, 『고전문학연구』 제 11집, 한국고전문학회, 1996.
- 강명혜, 「〈단군시가〉 새롭게 읽기」, 『동방학』 13집, 한서대학교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7.
- 강명혜,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 『온지논총』 25, 사단법인 온지학회, 2010.
- 김동욱 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1-5권, 연세대인문과학연구소, 1973.
- 김동욱, 국문학과 불교,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학』, 서울대출판부, 1982.
- 김성희, 「조선조 영웅소설의 작자층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김태곤, 『한국무가집』, 집문당, 1992.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6.
- 박대복, 고대소설 주인공의 출생과정과 민간신앙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 1981.
- 박대복, 『고소설고 민간신앙』, 계명문화사, 1995.
- 박명호, 「李奎報 '東明王篇'의 창작동기」, 『사충』 5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0.
- 박상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박성의, 『한국문학배경연구』상, 이우출판사, 1980.
- 표정옥, 「이동과 경계의 세계 문화에서 양성성으로 현현되는 한국전통 서사 무가 “바리테기”의 문화적 잔상과 의미작용」, 『비교한국학』 20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대출판부, 1985.

- 서인석, 『고전소설의 결말구조와 그 세계관』, 서울대 석사논문, 서울대 대학원, 1984.
- 성현경, 『이조소설의 적각유형과 그 작품구조』, 『동양문화』8집, 영남대동양문화연구소, 1977.
- 세창서관편, 『고전소설』 제 5권, 1952.
- 심진경, 「여장군계 군담소설-〈홍계월전〉연구」,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 안기수, 『영웅소설 연구』, 보고서, 2004.
- 유동식,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1977.
- 이강옥, 「불교계설화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4집, 1988.
- 이미자,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1988.
- 이상섭, 『문학연구의 방법』, 탐구신서 57, 1993.
- 이성준, 「바리데기의 분석심리학적 접근」, 『배달말』 제 48권, 배달말학회, 2011.
- 이유경,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2000, 태학사.
- 이유경, 『고전문학 속의 여성영웅형상연구』, 보고서, 2012.
-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 임동권, 민간신앙, 『종교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1975
- 임동권, 서울의 산속, 『한국 민속학 논고』, 선명문화사, 1971.
- 임병희, 「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4.
-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태학사, 1990.
- 장덕순,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72.
- 장시광,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 전용문, 「여성영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정병헌,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0.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최선영, 『여성영웅소설의 구조적 특징과 의미』,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윤정, 『우리 신화,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바리테기 신화 다시쓰기』,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 한숙향, 이승하, 『설화 모티브의 시적 형상화에 관한 연구 -바리테기와 바우덕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8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 홍성암, 『이규보 <동명왕편>의 서사시적 성격과 고구려의 정체성』,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2006.
- 황선명, 『민중종교운동사』, 종로서적, 1980.
- 황수진, 『한국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속죄양적 인물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88.
- 황패강, 『한국문학의 이해』, 새문사, 1991.
- 낸시 헤더웨이, 신현승역, 『세계신화사전, -신과 여신과 괴물과 영웅들의 환상적인 이야기-』, 세종서적, 2004.
- Edward Conze, 한형조 옮김, 『한글세대를 위한 불교』, 세계사, 1990.
- 토머스 칼라일, 박상일, 『영웅숭배론』, 한길사, 2003.
- Georg Lukacs : Probleme der Asthetik in : G.Lukacs werke Bd. 10, Neuwied / Berlin, 1969.
- Rene Wellek,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united publishing and promotion Co. Ltd, 1963.
- Roger Cailois, 이상을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4.
- S. 채트먼,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고려원, 1990.
- T. S. Eliot, 『Notes towards the definition of culture』, Faber and Faber Limites, 1979.

투고일: 2012.12.29 심사일: 2013.3.13 ~ 2013.3.25 심사완료일: 2013.3.25

<Abstract>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heroine reflected in classical literature

Kang, Myeong-Hye

From today, a representative hero in Korea is mainly exclusive property of 'male' and true meaning of heroin is absent because 'female epic tales' come from classical literature originated from 'Yeohawuinam' which means females were in the guise of male and acted like male. However, iconicity of 'hero' is unchangeable but the meaning of word cannot be said identical both in the past and now. Hero is not only come from classical novels but also is not come from stuffed symbolized character. Based on the premise, it was tried to find aspects of heroine from different viewpoints other than hegemonic male viewpoints.

As a consequence, a reason why heroin seemed not to exist in the ancient times is because of latent viewpoint of author or interpreter's perspective on hero as maximizing, minimizing or implying the character which seems mostly similar.

Our mother of ancestor, Woongnyeo, has a mysterious power in nature and symbolizes mother goddess as bearing the endurance and undergoing through the regeneration. This mother of ancestor covered with Dangun and Hwangwoong who are standard for hero in our ancient times is the very hidden heroine.

Moreover, Yoowha who is a mother of ancestor in Goguryeo times is a dignified heroine. She is a great heroin as continuously helping her son to build up his own nation and had undergone and overcome all of ordeal with her ability. Once she helped her son, she was able to be a 'Gokmosin' which

means a god of the earth and was held in high esteem and in honor. In the past, her existence or value was undervalued by prejudice, misinterpretation and avoidance by on purpose.

Sooro's wife was a noble and mysterious person who received all the attention from people as overcoming national crisis. She can stand comparison with heroin as helping lot of people and overcome hardship by others' help. Although, it was not easy to decode her character due to the implication, symbolization, contraction, and allegory but Sooro's wife is a dignified heroin who was taking in charge of abundance and life as overcoming hardships.

Including the Honggaewoljeon, a classical Korean novel, and actant in text of the novels were treated them not to real meaning of heroin as they dressed up as male. At this point, it is a bit sorry and proposed that those features in Chosun era are also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a characteristic of heroin.

Key words : heroin, male viewpoints, originated, iconicity, abundance, Yeohawuinam